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 손숙익

아주 특별한 인터뷰

한국제스프리 상무 임규남

대기업의 영업사원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닥친 IMF의 위기는 세일즈 능력만 믿고서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외국인 회사에 발을 들여놓게 하는 또 다른 기회가 되었다. 죽어라 영어와 영업만 하면서 지금은 판매능력도 인정받고 영어능력도 인정받아 외국인 계열 회사의 임원급까지 올랐다. 그 흔한 외국 연수조차 가지 않고도 아주 유창한 영어실력으로 외국인 회사에서 꼭 필요한 영어와 관련된 책까지 저술했고, 해외 영어연수는 필요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글로벌 기업인 제스프리 인터내셔널 한국지사의 임규남 상무를 만났다.

정리/이상원 (녹취자가)

“3000시간 노출하면 영어 술술”

-제스프리 인터내셔널은 어떤 회사이며 상무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제스프리는 뉴질랜드에서 생산되는 키위를 해외에 공급하고 마케팅을 하는 다국적 기업이고 저는 한국지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유통 영업마케팅을 책임지고 있어요.”

-모든 업무는 영어로 하나요?

“저와 함께 일을 하는 지사장은 뉴질랜드 사람이고, 아태지역의 총괄책임자는 대만분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회장은 호주분이고, 스태프들은 대부분이 호주와 뉴질랜드 분이기에 영어가 유일한 대화수단이지요.”

-84년에 대학에 입학하셨는데 전공이 무엇이고, 사회생활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졸업하기 두 달 전에 대우그룹에 입사를 하고 군대에 갔어요. ROTC를 했지요.”

-서울에 올라와서는 계속 영업을 하셨나요?

“기획부서에 발령이 되어서 기획업무와 마케팅전략업무를 하다가 나중에는 홍보 관련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IMF가 온 거군요. 그때 당시 직위가 어떻게 되셨어요?

“과장으로 일하다가 IMF가 왔는데 당시 대우전자는 정부로부터 빅딜을 강요받는 상황이었어요. 통합한 더 큰 회사의 직원이 되는 것과 퇴사하는 두 가지 선택이 놓여 있었지요.”

-질레트 코리아에 들어가셨을 때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부끄럽게도 영어가 안 되던 시절이라 시중에 나와 있는 영문이력서 작성법과 영어 인터뷰를 일주일 정도 공부를 하면서 표현들을 많이 인용하고 줄줄 외웠어요. 일단은 서류전형에서 1차 합격을 하고 3번의 면접을 봤는데 웬만한 인터뷰의 질문과 답을 외우고 갔어요. 그런데 상무님 한 분이 예상 밖의 질문을 해서 당황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의 일과를 영어로 말하라는 거예요. 떠들거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기에 영어는 잘 안 되지만 영업은 자신 있다고 말해버렸어요. 한국고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거라면 기회를 달라고 자신감을 보였죠. 그랬더니 오히려 후한 점수를 주셨고 마지막 면접까지 갈 수 있었어요.”

-입사 후 영어 때문에 생긴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희귀한 병이 생겼어요. 제 스스로 ‘화장실 공포증’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상하게 화장실에만 가면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는 현



기술 아닌 연속적 습득 해법 ‘해외연수...’ 발간 경험 나눠

상이 생겼어요. 호주인 사장님이 화장실에서 마주치면 영어로 말을 거는 거예요. 매일 다양한 질문과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긴장을 해서 나중에는 화장실만 가면 의지대로 조절이 안 되는 사태가 생겼죠.”

-어떻게 영어를 공부하셨는지 저도 너무 배우고 싶어요.

“질레트에 입사하던 1999년도에 회사에 업무성과를 내야 해서 오로지 업무에만 신경을 썼어요. 1년이 지나고 자리가 잡힌 다음에 영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죠. 늘 가족들과 한국말로 대화하고, 한국어로 된 신문과 방송을 보고, 만나는 고객들이 거의 모두가 한국분이었고 이런 제한된 환경에서 영어를 습득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과제였어요. 그러다 우연히 동시통역사로부터 3000시간 이론을 듣게 됐어요. 언어학자들이 언어 습득과정을 여러 가지 모형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중 하나인 언어 습득기간 동안에 최소한 3000시간에 연속적으로 노출되어야만 기본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3000시간이면 도대체 얼마죠?

“하루에 8시간씩 하면 1년이고, 하루에 4시간씩 하면 2년 정도 걸리는 시간이지요.”

-어떻게 실천을 하셨어요?

“우선 엑셀을 이용해서 3000칸을 만들었어요. 일을 하면서 3000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당시는 외국인 회사로 자리를 옮겼고 영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직급이 차장으로 입사를 했는데 임원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의 기준은 업무능력보다는 영어가 더 결정적인 좌우를 하지요. 임원이 되면 아무래도 외국인 상사 내지는 외국인 CEO들과 대화하는

기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정제할 것인가 아니면 외국인 회사의 임원이 되어서 보다 더 넓은 세계경영의 현장을 배울 것인가 하는 고민을 했고, 3000시간을 투자하기로 결심하고 입사 2년차부터 영어 사냥을 시작 한 거죠.”

-3000칸의 어느 정도를 가니까 들리던가요?

“벽에 붙여놓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반절쯤 채워졌는데도 들리지 않고 잘 안 돼서 포기할까도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일단 다 채워놓고 나중에 평가를 해보자 맘을 먹고 씬 없이 했지요. 그랬더니 3000칸을 다 채워갈 즈음에 희한하게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면서 저도 모르게 표현할 수 있는 양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언어라는 것이 특정한 기술이나 노하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간을 그런 환경에 노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거구나 하고 나름대로 깨닫게 되었죠.”

-조기유학은 어떻게요.

“요즘 많은 학부모들이 글로벌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영어를 잘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권국가로 일찍 보내야 한다고 강한 믿음에 사로잡힌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책도 발간했는데요.”

-‘해외연수, 조기유학 독인가? 약인가?’란 책이네요.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대략 13가지 요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의 리더십이라는 환경의 적응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것들이 대략 13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핵심적인 역량 중에 한 가지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겁니다. 영어는 커뮤니케이션의 일부예요. 그 많은 언어 중에서 하나가 영어고, 커뮤니케이션을 구성하는 요소는 그 삶의 태도나 용모나 발표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자녀분을 해외로 연수 보낼 생각은 없으세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하나 있는데 보낼 생각은 없습니다.”

-저도 3000시간을 노출시키면 영어가 될까요?

“저는 자신 있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어라는 것을 할 수 있다, 없더라든가 누구는 영어를 잘한다, 못 한다 등 능력적인 면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손숙익 아주 특별한 인터뷰(표준FM 98.1 MHz 월-토 오후 4시5분)

영원한 기술의 독점은 없다



지난주 화요일 중국 증권시장의 급락은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주식시장을 뒤흔들었다. 상하이 블랙 투스데이의 위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 규모로만 보면 중국증시는 한국증시보다 약간 큰 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상하이 배후지 쑤저우 공업단지들 가보면 중국과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어있는지 실감할 수 있다.

쑤저우(蘇州)는 항저우(杭州)와 함께 이른바 양쯔강 삼각주지대로, 가뭄, 홍수, 지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열대에 가까운 온화한 기후여서 2모작도 가능한 지역이다. 중국대륙, 아니 동아시아에서는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인가. “하늘에는 천당, 땅에는 쑤·항(蘇·杭)”이라는 말처럼, 쑤저우 공단에는 현재 전 세계 71개국으로부터 7000여 업체가 입주해 있다. 총투자규모가 300억 달러를 넘는다. 대부분 전자공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

업종으로서 과연 무공해 산업단지라고 하겠다.



김준길(명지대 연구교수) djunkk@hotmail.com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가전(家電), 반도체, 컴퓨터, LCD 등 4개의 법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국법인 ‘쑤저우 삼성전자 액정현시기(液晶顯示器) 유한공사’ 崔仁喆 운영팀장은 삼성전자가 쑤저우 공단에 진출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DELL, IBM, TCR 등 삼성전자의 반도체 제품들을 공급받는 세계의 고객들이 여기다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들 가까이 쫓아온 셈이지요. 물론 한국에서 드는 생산비를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LCD 생산목표를 올해 약 3000만 개를 잡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내를 포함한 전체 삼성생산량의 약 50퍼센트에 해당합니다. 고난도(高難度) 고비용 기술이 필요한 핵심 부품은 한국 본사에서 만들어 와서 이곳에서는 조립만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을 우리가 영원히 독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중국이 우리를 따라잡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현재의 기술은 물려주고 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최 팀장은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 전략을 터득하고 있었다.

한국모델 ‘해박’ 세계랭킹 29위



해외에서 ‘해박’으로 잘 알려진 패션모델 박혜림(22·사진)이 모델스닷컴 여자 모델랭킹 29위에 올랐다. 1위는 후주의 쟀마 위드(20), 톱50 가운데 아시아인은 박혜림과 2003년 미스중국 출신으로 26

위에 랭크돼 있는 두주안(20)뿐이다. 박혜림은 미국의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61)가 경영하는 뉴욕 트럼프매니지먼트 소속 모델이다. 박혜림은 마크 제이콥스, 프라다, 발렌시아가는 물론 샤넬 패션쇼 무대까지 주름잡아가며 급성장 중이다. 180cm의 키에 50kg, 32A-24-34인치인 슬림형이다. 1999년 미국으로 이민, 유타주립대에서 생물학을 공부하다 진로를 틀었다.

본사인사

<경영기획실> 최성일 대리
<광고마케팅부> 김석중 부장(3월 1일부)

로또복권 제222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 숫자
05	07	28	29	39	43	44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2,275,193,820
2등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57,454,390
3등	5개 숫자 일치					1,715,833
4등	4개 숫자 일치					66,418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연합복권 팝콘 제45회			
등위	당첨번호	당첨금(원)	
1등	5조 702247	10억원	
2등	5조 702246	5억원	
	5조 702248	5억원	
3등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1000만원	
4등	각조 44925	100만원	
5등	각조 399	1만원	
6등	각조 26.75	2000원	
7등	각조 1.9	1000원	

Daily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서울시 양천구 목동 917-1 기독교 방송 18층
대표전화: 02) 2650-1100 FAX: 02) 2650-1119

발행·편집인: 홍원기 (주)한국일보사
편집국장: 이정희
광고마케팅국장: 이봉훈
독자사업국장: 정태인
경영기획실장: 김상철

광고문의: 02)2650-1111
사업문의: 02)2650-1110
등록번호 서울가 00061